

## 신라 하대 선덕여왕 재인식과 추송

The study of renewed appreciation and posthumous honor for Queen Seon-deok in the Late Period of Silla

---

저자 (Authors)	김선주 Kim, Sunjoo
출처 (Source)	<a href="#">한국고대사연구 (86)</a> , 2017.6, 239-272(34 pages) <a href="#">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86)</a> , 2017.6, 239-272(3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고대사학회</a>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93469">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93469</a>
APA Style	김선주 (2017). 신라 하대 선덕여왕 재인식과 추송. 한국고대사연구(86), 239-27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5 13:2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하대 선덕여왕 재인식과 추송\*

김선주\*\*

- I. 머리말
- II. 신라 하대 선덕여왕 관련 기록과 인식
- III. 신라 시대 선덕여왕의 추송 양상
- IV. 선덕여왕 추송 배경과 의미
- V. 맺음말

### 국문 초록

우리 역사상 첫 여왕인 선덕여왕은 재위 시 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뒤에도 후대의 다양한 자료에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라 하대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경문왕계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선덕여왕은 후대인들에게 기억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념되고 추송되었다. 그 중심장소는 영묘사와 선덕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718)

\*\* 중앙대학교 강사

대표논저 : 2017 「선덕왕 지기삼사(知幾三事)의 형성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25, 2015 「신라의 오릉(五陵)과 시조 인식」, 『신라사학보』 33 ; 2013 「신라 선덕여왕과 영묘사」, 『한국고대사연구』 71.

여왕릉이었다. 영묘사는 선덕여왕을 추복하는 원찰로서 기능했으며, 영묘사와 선덕여왕릉에서 선덕여왕을 기념하고 추승하는 의례가 행해졌다. 신라에서는 중대 말기부터 직통 왕자를 두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왕 즉위 가능성이 탐색되었고, 여왕 즉위 첫 사례로서 선덕여왕이 주목되었다. 그렇지만 여왕으로서 즉위했던 선덕여왕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경문왕대 황룡사 9층탑을 중수하면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50여년 만인 신라 하대에 여왕 즉위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선덕여왕은 진성여왕 즉위의 명분이었으며, 왕권의 기반이었다. 신라 하대 선덕여왕에 대한 재인식과 추승은 신라 하대의 여왕 즉위라고 하는 정치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 선덕여왕, 영묘사, 선덕여왕릉, 추승, 황룡사 9층탑, 진성여왕

## I. 머리말

선덕여왕<sup>1)</sup>은 아버지 진평왕의 뒤를 이어 신라 제 27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선덕여왕은 신라 뿐 아니라 우리 역사상 첫 여왕이었다. 이후 신라에는 제 28대 진덕여왕, 제 51대 진성여왕이 즉위하여 세 명의 여왕이 있었다. 여왕은 우리 역사상 신라에만 있었다. 왜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을까? 세 명의 여왕은 어떻게 여성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여왕 즉위의 물꼬를 튼 첫 사례로서 선덕여왕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므로 선덕여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적지 않은 편이다. 선덕여왕

1)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善德王으로 쓰여 있다.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善德女王으로, 기이편에서는 善德王, 善德女大王으로 표기가 다양하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여성으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성적인 특징을 드러낸다는 의미와 함께, 선덕왕으로 표기하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후대 37대 선덕왕(宣德王)과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덕여왕으로 표기하였다.

을 주제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여왕이라는 특징과 관련하여 접근하였다. 선덕여왕이 여성으로 어떻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는지, 즉위 후 여왕이라는 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여왕으로서의 정치적 특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sup>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진평왕 말기에 있었던 칠축의 난이나, 선덕여왕 말기에 있었던 비담의 난이 주목되었으며,<sup>3)</sup> ‘지기삼사(知機三事)’나 ‘심화요탑(心火纒塔)’과 같은 선덕여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설화들이 분석되었다.<sup>4)</sup> 또한 선덕여왕의 정치적 기반이나 정책적 특징에 대한 해석도 있었다.<sup>5)</sup> 이와 관련하여 선덕여왕대 조영된 첨성대,<sup>6)</sup>

- 
- 2) 李晶淑, 1999 「眞平王 末期의 政局과 善德王의 即位」 『白山學報』 52 ; 文暉鉉, 1999 「弑王說과 善德女王」 『白山學報』 52 ; 이주희, 1999 「신라 선덕왕의 왕위계승 : '성골남진'과 '국인추대'를 중심으로」, 서강대석사학위논문 ; 朴勇國, 2000 「善德王代 初의 政治的 實狀」 『慶北史學』 23 ; 申政勳, 2001 「新羅 善德王代의 政治的 推移와 그 性格」 『大丘史學』 65 ; 조경란, 2008 「善德王이 이야기하는 선덕왕의 즉위」 『新羅史學報』 14 ; 金昌謙, 2015 「新羅 善德女王의 王位繼承에 대한 論議」 『韓國學論叢』 44.
  - 3) 丁仲煥, 1977 「毗曇·廉宗亂의 原因考 -新羅政治社會의 轉換期에 관한 一試考-」 『東亞論叢』 14 ; 武田幸男, 1985 「新羅·毗曇의亂」의一視覺」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歷史篇』, 平凡社 ; 朱甫喙, 1994 「毗曇의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古代篇·高麗時代篇』, 일조각 ; 鄭容淑, 1994 「新羅 善德王代의 정국동향과 毗曇의亂」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古代篇·高麗時代篇』, 일조각 ; 高慶錫, 1995 「毗曇의亂의 성격 문제」 『韓國古代史論叢』 7 ; 金德原, 2008 「신라 中古期 叛亂의 원인과 성격」 『民族文化論叢』 38.
  - 4) 강영경, 1990 「新羅 善德王의 '知幾三事'에 관한 一考察」 『원우론총』 8 ; 강재철, 1991 「선덕여왕지기삼사'조 설화의 연구」 『東洋學』 21 ; 신중원, 1996 「三國遺事」 善德王知幾三事條의 몇 가지 문제」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17 ; 엄기영, 2007 「지귀(志鬼) 설화의 형성 배경과 역사적 의미」 『民族文化研究』 47 ; 김창룡, 2007 「善德女王과 牡丹故事 攷」 『語文研究』 35 ; 엄중섭, 2008 「〈善德王知幾三事〉중 第3事 고찰」 『史學研究』 91 ; 이동매, 2013 「모란 전래 시기를 통해서 본 선덕여왕의 '모란일화'와 '화왕계」 『한국학연구』 31 ; 김태식, 2014 「모란의 심연, 선덕여왕과 그의 씨내리 남자들」 『新羅史學報』 30.
  - 5) 김기홍, 2005 「한국 최초의 여성왕 선덕여왕의 리더십」 『선비문화』 8 ; 김선주, 2009

영묘사(靈廟寺), 분황사(芬皇寺) 등의 건립배경이나 의미 등이 조명되기도 하였다.<sup>7)</sup> 나아가 선덕여왕을 비롯하여 세 여왕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기도 하였다.<sup>8)</sup>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선덕여왕의 즉위배경이나, 왕권, 통치적 특징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선덕여왕은 첫 여왕 즉위 사례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선덕여왕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다양한 사료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수 많은 왕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지만 모든 왕들이 후대에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선덕여왕이 사후에도 다양한 자료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선덕여왕이 후대에도 기억되고 기념할 만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본고에서는 선덕여왕 즉위 전후나 재위 시기가 아니라,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를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흥거(薨去) 이후 선덕여왕이 후대 인물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선덕여왕에 대한 후대의 기록과 인식들을

「선덕여왕의 즉위 배경과 통치적 특징」 『페미니즘 연구』 9-2 ; 정연식, 2009 「선덕여왕의 이미지 창조」 『韓國史研究』 147 ; 염중섭, 2009 「선덕왕의 轉輪聖王적인 측면 고찰」 『史學研究』 93 ; 이재철, 2010 「善德王의 政治的 基盤과 對外政策」,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金德原, 2014 「善德王代의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 31.

- 6) 이기동, 1981 「선덕여왕의 시대 : 첨성대 논쟁에 덧붙여서」 『한국과학사학지』 3-1 ; 정연식, 2009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첨성대」 『역사와 현실』 74 ; 조경철, 2011 「신라 선덕여왕의 알영신화 재편과 첨성대」 『천태학연구』 ; 장활식, 2013 「경주 첨성대의 방향과 상징성」 『신라문화』 42.
- 7) 이인철, 1999 「분황사 창건의 정치경제적 배경」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0 ; 박대남, 2009 「사찰구조와 출토유물로 본 芬皇寺 성격 고찰」 『한국고대사탐구』 3 ; 김선주, 2013 「신라 선덕여왕과 영묘사」 『한국고대사연구』 71.
- 8) 최창대, 1982 「善德, 眞德女王과 그 時代」 『論文集』 23-1, 부산공업대학 ; 조범환, 2000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 조경철, 2009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역사와 현실』 71 ; 이강식, 2011 「신라 세 여왕의 삶과 경영」 『여성과 경영』 3-2 ; 하일식, 2015 「선덕·진성여왕의 지도력과 시대 조건」 『내일을 여는 역사』 58.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후대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이 단순히 기억으로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후대에 선덕여왕에 대한 기념이 이루어졌는지, 기념이 있었다면 어떠한 장치를 통해 어떻게 기념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덕여왕이 후대에도 기억되고 기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덕여왕이 여성으로 왕위를 계승했다는 특수성만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 왕으로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신라 하대 선덕여왕 관련 기록과 인식

647년,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났다.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왕들 가운데 재위기간에만 행적을 보이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 역사의 뒷안길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몇몇 왕들만 후대에도 기억되고 회자된다. 선덕여왕은 여기에서 후자에 속한다. 선덕여왕은 흥거 뒤에도 역사에 종종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흥거한지 오래되지 않은 시기부터 사료상에 선덕여왕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현존 문헌자료에서 흥거 후 선덕여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보이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다음 현안왕의 유조(遺詔)이다.

- A. 과인은 불행하게도 아들은 없고 딸만 두었다. 우리나라의 옛 기록에 비록 선덕(善德)과 진덕(眞德)의 두 여왕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암담이 새벽을 알리는 일에 가까운 것이니 본받을 수 없다. 사위 응림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노성한 덕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대들이 왕으로 응림해 섬긴다면 반드시 조상의 위대한 업적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과인이 죽더라도 또한 마음을 놓을 것이다.”라고 하였다.”(『三國史記』卷11,

## 新羅本紀第11 憲安王5年)

신라 제 47대 헌안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을 두었는데, 사위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헌안왕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언급하였다. 헌안왕이 선덕여왕을 주목한 것은 여왕 즉위 선례로서였다. 그러나 헌안왕은 선덕여왕을 여왕 즉위 사례로 언급하면서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일에 가까운 것’으로 ‘본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헌안왕은 선덕여왕으로 대표되는 여왕 즉위 사례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헌안왕이 사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면서 굳이 선덕여왕과 같은 여왕 즉위 사례를 언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헌안왕이 과거에 있었던 여왕 즉위 사례를 주목했음을 보여준다. 진평왕과 같이 아들이 없고 딸만을 두었던 헌안왕은 딸의 왕위 계승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sup>9)</sup> 그러나 결국 헌안왕은 딸의 왕위 계승을 포기했다. 여왕으로 즉위할 경우 ‘조상의 위대한 업적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어, ‘죽더라도 또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헌안왕의 유혼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 사위 응림이 신라 제 48대 경문왕이다. 이 경문왕대에 선덕여왕이라는 이름이 다시 역사상에 등장하고 있다.

- B. 황룡사 구층탑은 善德大王 때에 세운 것이다. ~ 중략~ 과연 三韓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고) 君臣이 안락한 것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에 힘입은 것이다. (탑을 세운지) 백 구십여 년을 지나 文聖王代에 이르니 (탑을 세운 지가) 오래 되어 (탑이) 동북쪽으로 기울어졌다. 나라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여 고쳐 세우고자 여러 재물을 모은 지 30여 년이 되었으나

9) 헌안왕의 유조에 대해서 헌안왕의 속셈은 자신의 딸을 여왕으로 삼고 싶었던 것으로 보았다(황선영, 2006 「신라 하대 경문왕가의 왕위 계승과 정치적 추이」 『신라문화』 27, p.28).

아직 고쳐 세우지 못하였다. 지금의 왕이 즉위한 지 11년인 咸通 연간 신묘년에 탑이 기울어진 것을 애석하게 여겨 왕의 친동생인 上宰相 이간 金魏弘이 책임자가 되고 ....중략.... 그 해 8월 12일 처음으로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만들도록 하였다.〔황룡사 9층목탑 찰주본기〕<sup>10)</sup>

위 글은 경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사리함기에 쓰여진 내용이다. 사리함기에는 872년 경문왕 12년에 황룡사탑을 중수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도 경문왕 11년 봄 정월에 ‘왕이 유사에게 명하여 황룡사탑을 고쳐짓게 하였다’고 하였으며,<sup>11)</sup> 경문왕 13년 가을 9월에 ‘황룡사탑이 완성되었다’고 하였다.<sup>12)</sup> 이를 통해 경문왕대 황룡사 9층탑이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리함기 첫머리에 황룡사 9층탑이 선덕여왕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기되어 있다. 현안왕이 여왕 즉위 사례로 선덕여왕을 언급했던 12년 만에 선덕여왕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물론 선덕여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황룡사 9층탑을 중수하면서, 황룡사 9층탑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황룡사 9층탑이 건립되었던 시대와 그 중심에 있었던 국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리함기에는 신라인들의 황룡사 9층탑에 대한 믿음이 기록되어 있다. 삼한이 통합되고 군신이 안락하게 된 것이 황룡사 9층탑 때문이라고 여겼다. 황룡사 9층탑에 이와 같이 중요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룡사 9층탑 건립의 중심에 있었던 선덕여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리함기에서는 선덕여왕을 ‘대왕’으로 호칭하고 있다. 황룡사 9층탑을 중수하면서 선덕여왕은 ‘삼한 통합’과 ‘군신 안락’에 이르도록 했던 황룡사

10)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편, 1992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p.372~375.

11)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11年 春正月.

12)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13年 秋九月.

9층탑을 건립했던 '대왕(大王)'으로 재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문왕대 황룡사 9층탑 중수 과정에서 등장했던 선덕여왕이라는 이름은 그 뒤 경문왕의 아들인 정강왕대에 다시 나타난다.

C. “내 병이 위독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 틀림없는데, 불행하게도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그러나 누이동생 만(曼)은 천품이 명민하고 골격이 흡사 장부와 같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선덕왕과 진덕왕의 옛 일을 본받아 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第11 定康王2年 夏5月)

정강왕은 경문왕의 아들로 형인 헌강왕의 뒤를 이어 신라 제 50대 왕으로 즉위했다. 그런데 즉위한지 만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사도 없이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정강왕은 시종인 준홍을 불러 후계왕에 대해서 유조를 남겼는데, 이 자리에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언급하고 있다. 황룡사 9층탑 중수기에 선덕여왕의 이름이 등장한지 14년 만이었다. 당시 정강왕이 죽음을 앞두고 유훈을 남기는 자리라는 점에서 앞서 헌안왕이 선덕여왕을 언급했던 상황과 비슷했다. 여왕 즉위 사례로서 선덕여왕을 주목한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 정강왕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고사에 따라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왕으로 여왕 즉위를 유훈으로 남겼다. 헌안왕과 정강왕 모두 선덕여왕을 여왕 즉위 선례로 주목하였지만, 불과 26년 만에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선덕여왕과 같은 전례에 따라 여동생 만(曼)이 왕위를 계승하여 신라 제51대 진성여왕이 되었다. 선덕여왕의 사례가 진성여왕 즉위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후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은 최치원의 글에서 보인다. 신라 하대 유교 정치가로 유명했던 최치원은 선덕여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D. 옛날 우리 선덕여왕은 흡사 길상천녀의 성스러운 화신과 같아, 동방의  
 임금이 되어서 서방의 덕을 우러렀다.〔東文選〕卷64, 新羅伽伽山海印寺  
 善安住院壁記)

위의 글은 최치원이 해인사의 ‘선안주원(善安住院)’이라는 건물의 벽에 남긴 기(記)이다. 당(唐) 광화(光化) 3년 12월이라는 연대가 표기되어 있어, 효공왕 4년(900년)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해인사에 관한 기록과 함께 신라불교사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가운데 선덕여왕 때 지영(智穎)과 승고(乘固)가 중국유학을 다녀와 처음으로 대덕(大德)에 뽑혔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덕여왕을 길상천녀의 화신으로 비유하고 있다. 길상천녀는 인도의 브라만교와 불교에 등장하는 여신인데 대중에게 대공덕(大功德)을 베풀기 때문에 공덕천(功德天)이라고 한다.<sup>13)</sup> 최치원은 선덕여왕을 불교의 여신과 같은 존재로 비유한 것이다. 나아가 동방의 임금으로 서방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성군으로 표현하였다. 이 글이 쓰여진 시점은 효공왕 4년으로, 진성여왕이 양위한 뒤였다. 신라 하대 여왕 즉위가 실패로 끝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선덕여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들을 통해서 선덕여왕이 흥거한 이후에도 후대 신라인들에 의해 여러 차례 기억되고 주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덕여왕에 대한 위의 기록과 인식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는 위의 자료들이 시기적으로 신라 하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존 사료 상에는 중대시기에 선덕여왕을 언급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에 반해 하대에는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과 인식이 여러 자료에서 나타나며 내용도 다양하다. 물론 위의 내용들은 현재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들에서만

13) 광철환 편저, 2003 『길상천』 『시공불교사전』, 시공사.

추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대 시기에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하대에 여러 기록에서 선덕여왕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선덕여왕이 경문왕계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존 사료상에서 선덕여왕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현안왕은 경문왕에게 왕위 계승을 유조로 남겼던 경문왕의 장인이다. 현안왕으로 인해 경문왕이 즉위하면서 경문왕계가 개창되었다. 그 뒤 선덕여왕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황룡사 9층탑 중수 과정이었는데, 황룡사 9층탑이 중수된 것은 경문왕대였다. 선덕여왕 선례를 들어 여왕 즉위를 유훈으로 남겼던 정강왕은 경문왕의 이이다. 최치원이 해인사 선안주원 벽기에 선덕여왕을 언급했던 것은 효공왕대로, 효공왕은 경문왕의 손자이다. 선덕여왕에 대한 기억과 인식이 경문왕계 시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내용적으로 선덕여왕은 우선 여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었다. 현안왕과 정강왕은 모두 후계왕에 대한 유조를 남기는 과정에서 여왕 즉위 사례로 선덕여왕을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여왕이라는 측면에서만 선덕여왕을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삼한 통합을 가져왔다고 여긴 황룡사 9층탑을 건립했던 왕으로서, 또한 길상천녀에 비유되는 서방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호불 국왕으로서의 인식도 보이고 있다.

넷째는 선덕여왕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감지된다. 현존 자료 중에 가장 오래된 현안왕의 발언에서는 여왕으로 즉위했던 선덕여왕의 사례가 본받을 바가 못 되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는 선덕여왕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찾을 수 없다. 가장 후대인 최치원의 기록에는 ‘길상천녀’에 비유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III. 신라 시대 선덕여왕의 추승 양상

선덕여왕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후대 신라인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상기되었다. 특히 위의 기록들은 선덕여왕이 단순히 개인의 기억으로 회자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목했음을 보여준다. 기억은 기초적 역할을 하며 그 위에 제례와 그림이나 조형물 등 구체적인 상으로 기념하게 된다. 사후 후대의 기록에 등장하는 선덕여왕 역시 기억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념되고 추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선덕여왕의 기념과 추승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이 영묘사이다. 영묘사는 635년 선덕여왕 4년에 낙성된 사찰이다.<sup>14)</sup> 영묘사를 주목한 것은 선덕여왕 대에 건립되었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영묘사 낙성은 선덕여왕이 당나라로부터 ‘주국낙랑군공신라왕(柱國樂浪郡公新羅王)’에 책봉되고,<sup>15)</sup> ‘나라사람들(국인)’으로부터 ‘성조황고(聖祖皇姑)’라는 존호를 받는 등 일련의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다. 이후 선덕여왕은 왕권을 확립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묘사는 선덕여왕이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가시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었다.<sup>16)</sup>

영묘사는 선덕여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설화 속의 공간적 무대로 등장하기도 한다. 선덕여왕이 백제 군사가 왕경 근처까지 쳐들어 온 것을 미리 알고 군사를 보내어 섬멸하게 했다는 이야기에서 영묘사 연못이 등장한다.<sup>17)</sup> 선덕여왕을 짝사랑했던 지귀가 선덕여왕과의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마음에 불을 일으켰다는 장소도 영묘사였다.<sup>18)</sup> 영묘사가 선덕여왕과

14)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4年.

15)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4年; 『新唐書』卷220, 新羅傳.

16) 김선주, 2013 「신라 선덕여왕과 영묘사」 『한국고대사연구』 71, pp.291~292.

17) 『三國遺事』卷1, 紀異1 善德王知幾三事.

18) 權文海, 『大東韻府群玉』卷20, 心火繞塔.

관련된 상징성을 가진 사찰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영묘사는 통일기에 성전사원의 하나로 이름을 보이고 있다.<sup>19)</sup> 성전사원에 대해서는 중대 왕실의 원당적 기능이 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0)</sup> 영묘사 역시 원당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진지대왕의 원당으로 보거나,<sup>21)</sup> 영신에 대한 재래신앙에서 비롯된 봉사와 관련된 곳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sup>22)</sup> 그런데 영묘사는 진지대왕과 관련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찰의 이름인 영묘는 ‘조상의 신령을 모신 묘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래신앙과 관련된 봉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기록이 참조가 된다. 영묘사는 조선 전기까지도 그 위세가 남아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영묘사에 대해 ‘전우(殿宇)가 삼층인데, 웅장하고 화려함이 뛰어났다. 신라 시대의 탑묘(塔廟)는 지금 모두 허물어졌으나, 이 전(殿)만은 완연하게 예전과 같다.’고 하였다.<sup>23)</sup> 조선 전기에 활동했던 김시습, 성현, 조위와 같은 유학자들은 영묘사에 대한 감상을 시로 남기기도 하였다.<sup>24)</sup>

그중 성현이 영묘사에 대한 감상을 쓴 시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Е. 황금의 크나큰 상은 비로자나불이고요(黃金大像毗盧佛)

19) 『三國史記』 卷38, 雜誌7 職官(上).

20) 이영호, 1993 「신라 성전사원의 성립」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4 ; 윤선태, 2002 「신라 중대의 성전사원과 국가의례」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23.

21) 이영호, 1995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pp.199~205.

22) 채상식, 1984 「신라통일기의 성전사원의 구조와 기능」 『부산사학』 8, pp.96~97.

23)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24) 『梅月堂詩集』 卷12, 遊金鰲錄, 登靈廟寺浮圖 ; 『梅溪先生文集』 卷1, 五言古詩, 靈妙寺 ; 『虛白堂集』 卷5, 詩集, 靈妙寺.

백옥의 어여쁜 자태는 여주의 몸이로다(白玉嬌姿女主身) (『虛白堂集』 卷5, 詩集 靈妙寺)

성현은 연산군대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당시 영묘사에서 ‘비로자나불’과 함께 ‘여주의 몸’으로 표현된 형상을 보고 감상을 남긴 것이다. ‘여주(女主)’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여왕이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종종 사용하곤 하였다. 성현은 당시 영묘사에서 여왕의 형상을 보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왕은 우리 역사에서 신라에만 3명 있었지만 진덕여왕과 진성여왕은 영묘사와 관련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영묘사에 여왕의 형상이 모셔져 있었다면, 주인공은 선덕여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에서 특정인의 형상을 사찰에 모셔둔 것이 드문 사례는 아니다. 설총은 원효대사의 유해를 부수어 진용을 빚어 분황사에 봉안했다고 했다.<sup>25)</sup> 흥륜사에도 금당에 신라 10성의 소상이 모셔져 있었다.<sup>26)</sup> 소장만이 아니라 초상화의 형태로 모셔지기도 했다. 단속사 금당 후벽에는 경덕왕의 진영이 모셔져 있었다.<sup>27)</sup> 곡사에는 원성왕의 초상화를 모신 별실이 있었다.<sup>28)</sup> 부석사에도 신라왕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sup>29)</sup>

이들 사례처럼 영묘사에 선덕여왕의 진영 혹은 소상이 모셔져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특정인의 소상이나 초상을 모신 사찰은 대부분 그 대상과 인연이 있으며, 그 대상을 추복하는 원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영묘사에 선덕여왕의 형상이 모셔져 있다는 것은 영묘사에서 선덕여왕을 추복했기 때문일

25)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26) 『三國遺事』 卷3, 興法3 東京興輪寺金堂十聖.

27) 『三國遺事』 卷5, 避隱8 信忠掛冠.

28)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편, 1992 『崇福寺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 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271.

29) 『三國史記』 卷50, 列傳10 弓裔.

것이다. 영묘사가 선덕여왕의 원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영묘사가 선덕여왕의 원찰이 되었을까? 영묘사가 건립된 선덕여왕 대부터 선덕여왕의 원당이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영묘사를 후대 진전사원의 기원으로 보면서,<sup>30)</sup> 신라에서 중고기에 진전사원이 형성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sup>31)</sup>

그러나 영묘사가 창건 당시부터 선덕여왕이 자신의 원찰로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영묘사는 사찰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상의 신령을 모신 종묘 사원’의 성격으로 건립되었다. 영묘사 낙성은 선덕여왕이 국민들로부터 ‘성조황고’라는 존호를 받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다. ‘성조황고’는 선덕여왕이 ‘성조로부터 혈통을 계승한 여황제’라는 의미이다. 영묘사는 선덕여왕에게 혈통적인 정통성을 부여한 성조를 모신 묘당으로, 성조는 영묘사와 인접해 있는 ‘오릉’에 모셔진 건국 시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sup>32)</sup>

그러다가 후대에 선덕여왕의 원찰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창건 당시의 추복 대상과 이후에 대상이 변화를 가지는 사례는 적지 않다. 봉덕사(奉德寺)는 원래 성덕왕이 태종무열왕을 추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그렇지만 봉덕사는 후대 성덕왕의 아들들인 효성왕과 경덕왕이 오히려 아버지 성덕왕을 추복하는 장소가 되었다. 성덕대왕 신종은 봉덕사의 종으로도 불린다는 점에서 변화상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내려가지만 고려 현화사도 원래는 현종이 자신의 부모를 추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하였지만, 이후 현화사는 현종 추복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원찰은 후대의 왕이 역대 국왕들이 생전에 창건했거나 지원했던 사찰에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sup>33)</sup> 영묘사도 선덕여왕이 창건하고 지원했던 사찰이라

30) 박남수, 2012(a) 「眞殿寺院의 기원과 신라 성전사원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41, p.52.

31) 박남수, 2012(a) 위의 논문, p.52.

32) 김선주, 2013 앞의 논문, pp. 291~292.

는 점에서 후대에 선덕여왕의 원찰이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영묘사는 선덕여왕 대 건립 당시에는 선덕여왕의 왕위 계승에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성조’의 묘당으로 건립되었지만, 선덕여왕이 흥거한 뒤 후대에 선덕여왕의 원찰로 성격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영묘사는 현재 ‘천경림 홍륜사’라는 간판을 내건 사찰이 운영되고 있는 경주 사정동 지역 일대로 추정하고 있었다.<sup>34)</sup> 이 지역 일부에 발굴조사 실시되었는데, 조사 결과 시기를 달리하는 유구가 상하(上下)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층에서는 삼국시대 말기에서 통일기 초기로 편년되는 기와들이 출토되었으며, 상층에서 출토된 기와편들은 통일신라 후기로 편년되었다. 이에 기와 등의 출토 유물을 근거로 영묘사가 삼국 시대에 창건되어 유지되다가 통일 신라 후기에 와서 대대적인 재건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5)</sup> 발굴조사를 통해 영묘사가 통일 신라 후기에 대대적인 재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영묘사가 언제 재건되었는지 구체적인 시기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알 수 없다. 다만 고고발굴조사를 토대로 영묘사가 통일신라 후기에 재건되었으며, 재건이 이루어진 통일신라 후기에는 영묘사가 선덕여왕의 원찰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선덕여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설화 중에 ‘여근곡’ 설화와 같이 영묘사를 무대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신라 하대에 만들

33) 박남수, 2012(b) 「新羅 眞殿寺院의 조영과 그 思想的 背景」 『신라문화』 40, p.52.

34) 이 지역에는 현재 ‘천경림 홍륜사’라는 간판을 내건 사찰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영묘’라는 글자가 쓰여진 다양한 문자 와당이 출토되고 있어 이 일대가 영묘사지라는 추정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지역을 영묘사지로 추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흥국, 1980 「경주지방에서 출토된 문자명과」 『전국대학학생술연구발표논문집』 5 ; 김원주, 1983 「사적 제15호 홍륜사지는 영묘사지의 잘못」 『窄古』 51 ; 이근직, 2002 「신라 홍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신라문화』 20 ; 박흥국, 2002 「와전자료를 통한 영묘사지와 홍륜사지의 위치비정」 『신라문화』 20.

35) 신창수, 2002 「興輪寺의 發掘成果 檢討」 『新羅文化』 20, pp.8~10.

어졌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sup>36)</sup> 이는 신라 하대에는 영묘사가 선덕여왕과 관련된 상징성을 가진 사찰이었음을 보여준다.

영묘사가 선덕여왕의 원찰이었다면 영묘사에서 선덕여왕을 기념하는 의례도 행해졌을 것이다. 소상이나 초상화는 조선시대 신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라 시대 초상이나 소상을 모셔두고 제례를 행한 정황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분황사에 원효의 소상을 모셔 두었던 설총이 소상에 예(禮)를 행하는 모습이 보인다.<sup>37)</sup> 단속사에서는 신행선사의 영정을 그리고 부도를 만들어 사리를 보존하면서 지계(持戒)의 향을 불사르고 선정의 물을 뿌려 성인께 간절한 정성을 바쳤다고 하였다.<sup>38)</sup> 영묘사에 선덕여왕의 형상이 모셔져 있었다는 것은, 영묘사에서 선덕여왕에 대한 기념의례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선덕여왕에 대한 기억 및 추승과 관련하여 또 주목할 것이 왕릉이다. 전 근대 왕조에서는 선대왕 추복시설로 능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경주시 보문동 낭산 남사면에는 선덕여왕릉으로 전승되고 있는 왕릉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선덕여왕을 낭산에 장사지냈다고 하였으며,<sup>39)</sup> 『삼국유사』 왕력에는 낭산을 장지로 설명하면서 그 아래에 사천왕사가 있다고 하였다.<sup>40)</sup> 현재 낭산에 있는 ‘선덕여왕릉’으로 전해지고 있는 무덤은 이들 기록과 여러모로 부합된다. 그러므로 사적 182호로 지정된 이 무덤의 주인공을 선덕여왕으로 보는 것에 크게 이견이 없다.<sup>41)</sup>

36) 김선주, 2017 「선덕왕 지기삼사의 형성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25, pp.231~234

37)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38)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편, 1992 『斷俗寺 神行禪師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 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24.

39)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16年秋七月.

40) 『三國遺事』 卷1, 王曆1.

41) 선덕여왕릉의 호석 구조를 주목하여 십이지신상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반침석이 확

그런데 신라의 왕릉 가운데 피장자가 정확한 왕릉은 몇 기(基) 되지 않는다. 신라의 왕경이었던 경주에는 신라 왕릉으로 전해지고 있는 무덤은 적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은 왕릉의 주인공이 확실하지 않다. 고려에 귀부해서 고려 수도인 개성 인근에 묻힌 것으로 알려진 경순왕을 제외한 55명의 신라왕 가운데 왕릉이 정확한 경우는 선덕여왕, 태종무열왕, 문무왕, 흥덕왕 등 손에 꼽을 정도이며, 최근 괘릉을 원성왕릉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신라 왕릉의 주인공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신라 왕들의 장지나 왕릉 위치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 『삼국사기』에는 34왕에 대해 장지나 왕릉 기록이 보인다. 『삼국유사』에서도 왕력편에 8왕, 기이편 등 본문에 7왕의 장지 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을 합치면 신라에서 40여 왕이 장지나 왕릉의 위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sup>4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왕의 왕릉은 현재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현재 주인공을 알 수 없는 왕릉들이 처음부터 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장지가 조성되고 나서 주인공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고, 또한 기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왕릉의 피장자를 기념하는 별도의 행사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능묘의 주인공은 잊혀질 수밖에 없다. 후대에도 기억되고 기념되는 무덤만이 주인공을 기억하며 살아남을 뿐이다.

선덕여왕릉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후대에도 끊임없이 선덕여왕이 기억되었으며, 선덕여왕을 기념하는 장소로 왕릉이 관심을 받고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신라에서 대부분 왕릉의 주인공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치 비정에 이견이 없는 왕릉 가운데 하나가 선덕여왕릉이라는 점은 주목할

인된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통일기 전신문왕릉부터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문왕 또는 효소왕릉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이병도, 1969 『김유신묘고』 『김재원박사학갑기념논총』; 재수록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p.714).

42) 강인구, 2000 『신라왕릉의 재검토3』 『고분연구』, 학연문화사, p.448.

만하다. 더구나 통일기 이전의 왕릉으로서 피장자가 확실한 것은 선덕여왕릉이 유일하다.

통일기 이전 왕릉 가운데 선덕여왕릉만이 뚜렷한 전승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국유사』에 따르면 선덕여왕은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을 날을 예언하면서, 도리천에 묻을 것을 유언하였다고 한다.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딘지 모르자, 낭산이 도리천이라고 했는데 문무왕대에 낭산 아래에 사천왕사가 조영되면서 선덕여왕릉이 있는 낭산이 도리천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43)</sup> 그렇다면 사천왕사가 조영되었던 문무왕대에 낭산=도리천설의 중심에 있는 선덕여왕릉이 신라인들에게 환기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사천왕사가 건립된 문무왕대는 선덕여왕 사망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 사천왕사는 당나라 침략소식을 듣고 670년(문무왕 10년)에 임시로 지었다가 679년(문무왕 19년)에 낙성되었다.<sup>44)</sup> 선덕여왕이 647년에 흥거했으므로 3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이다. 문무왕대 사천왕사를 건립하면서 선덕여왕릉을 주목했지만, 이후에 선덕여왕릉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신라 왕들처럼 선덕여왕릉도 중간에 전승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실제 문무왕 이후 신문왕부터 중대 대부분의 왕들은 왕릉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까지 선덕여왕릉이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선덕여왕릉이 문무왕 이후 더 후대에도 국가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각훈이 찬술한 「해동고승전」의 다음 이야기가 주목된다.

F. 한림인 설모(薛某)가 왕명을 받들어 비명을 지었다. 그 비명에 말하기를  
**“후(后)를 도리천에 장사지내고, 사천왕사를 세웠다.** 괴상한 새가 밤에 울고, 군사들이 모두 아침에 죽었다. 왕자는 관문을 건너 중국 조정에 들

43) 『三國遺事』卷1, 紀異1 善德王知幾三事.

44)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19年.

어가 임금을 뵈고, 5년간 외지에서 보낸 후 30세에 돌아오니, 뜨고 잠기는 윤전(輪轉)을 지나 나나 어찌 면하겠는가? 나이 62세에 만선도량에서 입적하였는데, 사신이 바닷길로 돌아오다가 스님을 만나니 물 위에 단정히 앉아 서쪽을 향해 가더라”하였다. 비문에 이기가 침식하여 열 자(字)가 분명하지 못하며, 4, 5자는 없어졌다. 대략 볼 수 있는 것만을 취하여 짐작으로 문장을 만들었다. 대개 다른 문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또한 그가 남긴 자취를 짐작할 수 있다.〔海東高僧傳〕卷2, 卷第二 流通一之二 釋安舍)

『해동고승전』 안함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림인 설모가 찬술한 안함비에 도리천에 장사지내는 것과 사천왕사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도리천 장사와 사천왕사 건립을 예언한 주인공은 안함이다. 안함은 『동도성립기』를 저술했다는 안홍과 같은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안함(안홍)은 선덕여왕 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선덕여왕 대에 여왕 정권으로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덕여왕의 위대성을 불교적으로 윤색한 인물로 보고 있다.<sup>45)</sup> 선덕여왕 대 건립한 황룡사 9층탑도 자장에 의해 구체화되었지만 원래는 안함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46)</sup>

안함은 진평왕대에는 원광, 선덕여왕대에는 자장에 밀려 생전에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신라 중대 말 하대 초에 크게 부상했다.<sup>47)</sup> 『해동고승전』에는 한림 설모(薛某)가 조칙을 받들어 안함(안홍)의 비문을 찬술하였다고 했다. 한림이라는 직책이 경덕왕 이후에야 나타난다는 점에서 안함의

45) 신종원, 1992 『安弘과 新羅佛國土說』 『新羅初期佛敎史研究』, 민족사, p.239; 최홍조, 2013 『신라 神行禪師碑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목간과 문자』 11, p.247.

46) 신종원, 1992 앞의 책, 민족사, pp.244.

47) 최홍조, 2013 위의 논문, p.247

비가 중대 말에서 하대 초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본다.<sup>48)</sup> 또한 흥륜사의 금당에는 안함(안흥)의 소상이 10성(聖) 중의 하나로 봉안되어 있었는데, 10성 가운데 경덕왕대 활동했던 표훈도 포함되어 있어 하대 초에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애장왕 대(800~809)에 세워진 고선사 서당화상비에서는 서당 화상이 안함(안흥)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였다.<sup>49)</sup> 또한 혜공왕대 활동했던 신행선사의 비문에서도 신행이 안함(안흥)의 후예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중고기의 인물인 안함이 하대 초 9세기 초반 무렵에 크게 존송받았음을 보여준다. 신라 하대 초에 안함이 현창되었다면, 안함의 업적도 재조명되었을 것이다. 안함 업적의 중심에 신라 불국토설이 있다. 신라 불국토설에는 낭산=도리천설이 핵심인데, 그 중심에 선덕여왕릉이 있었다. 신라 하대 초 안함이 현창되었다면 낭산을 도리천으로 하는 신라 불국토설에 대한 구도와 함께 도리천으로 알려진 낭산에 위치한 선덕여왕릉도 주목되었을 것이다. 선덕여왕릉이 오늘날까지 주인공에 대한 혼동이 없이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신라 하대에 다시 선덕여왕릉이 주목되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선덕여왕릉 역시 단순히 왕을 매장한 무덤이 아니라, 선덕여왕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례장소였다. 선덕여왕릉은 별도의 배례 공간이 있다. 마립간기 왕릉에는 배례 공간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선덕여왕 이전 중고기 왕릉은 군집되어 있으면서 공동의 배례공간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선덕여왕릉은 독립된 능원에 독립된 배례 공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sup>50)</sup> 선덕여왕릉에 배례 공간이 있다는 것은, 선덕여왕릉에서 제례가 행해졌음을 보여준다. 선덕여왕릉이 단순히 매장 장소가 아니라, 선덕여왕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례가 행해졌던 곳이었다.

48) 신종원, 앞의 책, p.240, 주21.

49)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편, 1992 『고선사 서당화상비』 『譯註韓國古代金石文』 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p.3~11.

50) 김용성, 2013 『신라 능원의 의의』 『민족문화』 53, p.6.

이를 통해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후대인들에 의해 기억되었을 뿐 아니라, 기념되고 추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심 장소는 선덕여왕이 묻혔다고 여겨진 왕릉과 선덕여왕의 원당이었던 영묘사였다. 이들 장소는 선덕여왕을 추승하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덕여왕을 추승하는 의례가 행해졌던 장소였다.

#### IV. 선덕여왕 추승 배경과 의미

위의 검토를 통해 선덕여왕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후대 신라인들에게 기억되고 기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덕여왕의 원찰인 영묘사와 선덕여왕릉을 중심으로 선덕여왕을 추승하고 기념하는 의례도 행해졌다. 현존하는 사료에서는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이 신라 하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하대에 특별히 선덕여왕을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선덕여왕에 대한 기념과 추승이 하대에만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존 문헌자료에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이 하대에만 나타난다는 것은,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과 추승이 중대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선덕여왕 관련 기록이 경문왕계 시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경문왕계는 250여 년 만에 신라에서 여왕을 배출한 왕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다면 신라 하대에 특별히 선덕여왕을 주목하여 기억하고 추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선덕여왕이 사후에도 국가적으로 기억되고 추승되었다는 것은, 후대 신라에서 선덕여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 먼저 선덕여왕이 어떠한 측면에서 기억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살펴보면 선덕여왕은 무엇보다 왕위 계승 과정에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여왕 즉위 선례로서이

다. 이는 선덕여왕이 후대인들에게 ‘여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하대에 ‘여왕’이라는 측면에서 선덕여왕이 왜 주목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신라 하대의 왕위 계승이 불안정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신라 하대는 왕위 계승 다툼이 격화된 시기였다. 그 시작은 하대 왕실의 개창 과정에서부터 있었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해공왕이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피살되면서, 왕위 계승은 정통성이 아닌 힘의 역학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 해공왕이 피살된 뒤 즉위한 선덕왕 이후에도 왕위 계승은 보다 정통성을 가진 김주원이 아닌 원성왕이 즉위하면서 왕위 계승의 원칙이 무너지고 혼란이 가속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대 왕들 중에는 적통 남자 후계자를 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실상 하대의 개막도 경덕왕의 불안한 후계문제에서 시작했다. 경덕왕은 첫 왕비인 삼모부인에게서 후사를 얻지 못하자 출궁시키고 만월부인을 입궁시켰다.<sup>51)</sup> 만월부인도 입궁한지 15년이 지나서야 겨우 해공왕을 낳았다.<sup>52)</sup> 이 해공왕은 원래 딸로 태어나야 했는데 경덕왕의 간청으로 아들로 바뀌었다는 설화를 가지고 있다. 아들이 태어나면 신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덕왕이 아들을 원해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공왕의 탄생과 관련된 이 설화는 경덕왕이 후계자 문제로 오랫동안 고심을 했음을 보여준다. 뒤늦게 해공왕을 얻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경덕왕으로서 후계자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이 많았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아들이 끝끝내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 경덕왕이 딸을 아들로 바꾸어달라고 했다거나, 해공왕이 딸로 태어났어야 했

51) 『三國遺事』卷2, 紀異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52)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景德王17年秋七月二十三日.

데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처럼 행동했다는 이야기 등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은 경덕왕대 여성 후계자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한다.

탄생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혜공왕은 재위 중에 피살되었고 중대도 막을 내렸다. 이후 신라는 왕위 계승 쟁탈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 특히 흥덕왕 이후 왕위 계승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장보고의 군사를 빌린 균정이 신무왕으로 즉위하면서 왕위 계승 싸움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또 다른 후계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것은 직계의 왕위 계승자를 두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신무왕은 즉위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아들 문성왕이 계승하였지만, 문성왕이 세상을 떠날 무렵 왕위를 이을 적통아들이 없었다. 그러므로 신무왕의 동생으로 문성왕에게는 삼촌이 되는 현안왕이 문성왕의 뒤를 이었다. 그렇지만 이 현안왕에게도 적통 아들이 없었다.

다만 현안왕에게 딸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현안왕은 딸의 왕위 계승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여왕 즉위 사례로서 선덕여왕을 주목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결국 현안왕은 여왕 즉위를 포기하였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여왕 즉위는 자칫하면 ‘조상의 위대한 업적을 떨어뜨릴 수’있는, ‘죽더라도 또한 마음을 놓을 수’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원했던 경덕왕의 사례는 이미 신라에서 여왕 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음을 보여준다. 경덕왕대에 만들어진 안심가에는 왕을 아버지로, 신하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다.<sup>53)</sup> 이는 당시 신라에서 남녀 성별이 왕과 신하처럼 수직적인 관계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왕 즉위는 자칫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현안왕은 선덕여왕과 같은 여왕 즉위를 타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 주

53) 『三國遺事』卷2, 紀異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런데 현안왕과 같이 적법한 남자 후사가 없는 상황이 신라 왕실에서 다시 발생했다. 현안왕의 유훈으로 즉위했던 경문왕은 현안왕의 딸과의 사이에 아들을 두 명 두었다. 그 두 아들이 차례로 즉위하여 헌강왕과 정강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모두 적법한 아들을 두지 못했다. 헌강왕은 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왕비와의 적통 아들을 두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 낳은 그 아들도 나이가 너무 어렸다. 그러므로 동생 정강왕이 즉위하게 되었지만 즉위한지 1년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 중대 말부터 신라 왕실에서는 적통 아들을 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정통성을 가진 최선의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왕위 계승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었으며, 다른 한편 왕위 후계자로서 여왕 즉위 가능성이 끊임없이 타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왕 즉위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첫 여왕으로 즉위했던 선덕여왕이 주목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여왕으로 즉위했던 선덕여왕의 사례는 처음에는 모색으로만 그쳤다. 사료에서 처음 선덕여왕 즉위 사례를 언급했던 현안왕은 결국 사위로 잇게 할 것을 유훈으로 남겼다. 선덕여왕과 같은 옛 고사가 있지만, 본받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 현안왕의 말이었다. 그것은 현안왕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여왕 즉위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자칫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할 왕위 계승이 이루어질 경우 겨우 일 단락되었던 왕위 계승 싸움이 재점화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불과 수십년 뒤 현안왕의 외손자가 되는 정강왕은 현안왕과 다른 결정을 했다. 선덕여왕과 같은 여왕 즉위 선례를 들면서 여동생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한 것이다. 그것은 정강왕이 현안왕에 비해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강왕은 당시 여왕 즉위가 가능하다고 여긴 것이다. 여왕 즉위에 대한 인식이 현안왕 대와는 다른 변화가 그 사이

있었던 것이다.

선덕여왕이 첫 여왕이라는 측면 외에 주목된 것은 황룡사 9층탑 중수과정이었다. 선덕여왕 대에 건립된 황룡사 9층탑은 경문왕 대에 중수하게 되었다. 찰주본기에는 황룡사 9층탑이 기울어져 나라에서 무너질까 염려하여 문성왕 대 중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행되지는 못했다. 국가적인 대사업인 만큼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문왕대 황룡사 9층탑을 개수하면서 국가적인 역사로 찰주본기를 남기고 있다는 점, 선덕왕대 용수의 위치에 비견되는 경문왕대 위홍의 위치에 주목할 때 경문왕대 황룡사 9층탑 개수는 선덕왕대의 건립과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54)</sup>

문성왕대부터 뜻을 두었던 황룡사 9층탑 중수는 문성왕, 헌안왕을 거쳐 경문왕이 즉위한지 11년에 가서야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는 경문왕 11년에 황룡사 9층탑을 재건할 절실한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경문왕 8년에 황룡사 탑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하니 이것이 논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인 무리를 감수하고라도 경문왕대에 황룡사를 중수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황룡사 9층탑 중수기에 보면 황룡사 9층탑에 가장 큰 의미를 둔 것은 ‘삼한 통합’과 ‘군신안락’이었다. 그것은 경문왕대 9층탑을 중수하려 했던 목적이기도 했다.<sup>55)</sup> 경문왕이 황룡사 9층탑을 개건한 데에는 9세기 전반 이래 지속되었던 분란을 종식시켜 군신이 안락한 평화로운 시대의 도래를 바랬던 희원

54) 정원경, 1982 「신라 하대 원탑건립에 관한 연구 -경문왕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7.

55) 윤경진도 황룡사구층목탑의 재건은 경문왕을 구심점으로 하는 통합의 정책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하였다(윤경진, 2015 「신라 경문왕의 통합 정책과 황룡사구층목탑의 재건 -9세기 삼한일통의식의 확립과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61, p.453).

이 담겨 있었다.<sup>56)</sup>

황룡사 9층탑 중수로 경문왕의 정치적 의도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탑을 중수하면서 애초 탑의 건립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당시 무엇보다 절실했던 ‘안락’과 ‘통합’을 가져온 황룡사 9층탑을 건립했던 왕으로서 선덕여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덕여왕은 삼한 통합과 군신이 안락하도록 한 황룡사 9층탑을 만든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선덕왕은 삼한을 통합하고 군신을 안락하게 하는데 기여한 ‘대왕’이었던 것이다.

중대 말 이후, 특히 문성왕, 현안왕대 남성 직계 후계자의 단절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여왕 즉위 가능성이 타진되면서 ‘선덕여왕’의 존재가 부각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룡사 9층탑이 중수되면서 선덕여왕은 백제, 고구려의 협공 속에서 국가를 수호하는 위업을 쌓았던 능력있는 왕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었을 것이다. 황룡사 9층탑의 개건을 통해, 선덕여왕이 부각되고, 이는 통일기에 확산되었던 ‘여왕 불가’라는 인식을 희석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변화상이 정강왕으로 하여금 여왕 즉위가 가능하다고 여기게 했으며, 결국 선덕여왕과 같은 선례를 기반으로 여왕 즉위를 유훈으로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신라 하대 재등장하는 여왕 즉위에는 이와 같은 선덕여왕에 대한 재인식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sup>57)</sup> 신라 하대 선덕여왕에 대한 기억과 재인식은 신라 하대에 여왕 즉위라는 결과를 낳았다.

선덕여왕은 250여 년 만인 9세기 후반 신라하대에 탄생한 여왕 즉위의 명분이었다. 진성여왕의 통치는 선덕왕의 통치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즉위 직후에 죄수를 사면하고, 주군의 조세를 감면하였으며, 황룡

56) 이문기, 2015 「883년 김위홍의 해인사 비로자나불상 조성의 배경과 의미」 『대구사학』 119, p.21

57) 정용숙, 1994 「신라의 여왕들」 『한국사시민강좌』 15, p.60.

사에서 백좌강회를 개최하여 호국의지를 다지는 등이 그것이다.<sup>58)</sup> 선덕여왕이 진성여왕의 왕권에 정통성을 제공하는 기반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덕여왕에 대한 기념과 추승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선덕여왕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장소였던 영묘사는 경덕왕대 이후에는 문헌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신라 하대 신덕왕대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 하대 말에 신라에는 멸망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영묘사였다. 신라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장소 중에는 신라의 대사찰인 황룡사도 있었다. 신라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장소들이 신라를 상징하는 국가적인 위상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영묘사가 신라 하대에 황룡사와 같이 국가적인 상징성을 가진 사찰로 위상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진성여왕은 즉위한지 11년 만에 도중에 왕위를 양위하고 말았다. 그런데 진성여왕이 양위한 뒤에도 선덕여왕에 대한 언급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더구나 선덕여왕을 불교의 신격인 길상천녀에 비유하고 있다. 이 글을 쓴 작자는 최치원이다. 최치원이 선덕여왕을 길상천녀로 묘사한 글을 쓴 것은 효공왕 4년이었다. 효공왕은 진성여왕의 양위로 즉위한 왕으로 당시 최치원이 선덕여왕에 대한 묘사는 진성여왕이 양위한 뒤의 시점인 것을 알 수 있다.

진성여왕이 양위한 뒤에 선덕여왕에 대한 언급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구나 선덕여왕을 길상천녀로까지 묘사하고 있다. 세월이 흐른 뒤 기억에 의존해 기록된 역사에는 사실만이 아닌 기록자의 의중까지 뒤섞여 있다. 최치원은 진성여왕대에 정치 활동을 한 인물이다. 최치원이 시무 10조를 올린 대상도 진성여왕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치원은 진성여왕의 양위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중국에 양위표를 작성한 당사자였다. 이러한 최치원이 첫 여왕이었던 선덕여왕을 언급한 것은, 더구나 선덕여왕을 불교의 신격인 길상천

58) 정용숙, 1994 「신라의 여왕들」 『한국사시민강좌』 15, 일조각, p.56.

녀에 비유할 정도로 호의적으로 표현한 것은, 재위 도중에 양위했던 진성여왕에 대한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첫 여왕이었던 선덕여왕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진성여왕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최치원은 진성여왕의 양위가 여왕이라는 점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 진성여왕을 변호하기 위해 여왕의 첫 사례였던 선덕여왕을 의식적으로 회상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진성여왕이 양위한 뒤에 선덕여왕에 대한 언급은 진성여왕의 양위라고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선덕여왕은 진성여왕 즉위의 명분이었으며, 왕권의 기반이었다. 나아가 신라 역사상 유일하게 재위도중에 양위로 끝난 진성여왕을 변호하는 보호막이기도 하였다. 신라하대에 선덕여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억되고 추송되었던 것은 250년 만에 재등장했던 신라 하대의 여왕 즉위라고 하는 정치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 V. 맺음말

선덕여왕은 흥거 이후에도 문헌 자료에 종종 언급된다. 특히 하대에 집중적으로 선덕여왕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선덕여왕은 당대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기억되고,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덕여왕은 단순히 기억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사후에 선덕여왕을 기념하는 추송이 있었다. 구체적인 장소로 영묘사와 선덕여왕릉이었다. 영묘사와 선덕여왕릉은 단순히 기념물이 아니라 선덕여왕을 추모하는 기념 의례가 행해졌던 장소였다.

신라 하대에 특별히 선덕여왕이 재인식되고 기념되었던 것은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덕여왕 사후 그 존재가 주목된 것은 왕위 후계 문제

와 관련해서였다. 왕권 강화에 있어서 혈통의 정통성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신라에도 선대왕에 대한 추승이 이루어진 흔적은 있다. 중대왕실을 개창한 태종무열왕이나, 하대 왕실을 열었던 원성왕에 대한 추승이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자손을 두지 못한 선덕여왕이 혈통상의 문제로 후대에 추승된 것은 아니다.

선덕여왕이 사후에도 주목을 받은 것은 우선 최초의 여왕이라는 측면이다. 중대 말기부터 신라 왕실에서는 왕위 계승이 불안정했다. 적통 왕자를 두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적통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여왕 즉위 가능성이 탐색되었고, 첫 여왕 즉위 사례로서 선덕여왕이 회상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여왕 즉위는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남성 후계자를 고집하였고, 다른 방편으로 사위의 계승이 나타났다.

그러나 황룡사 9층탑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선덕여왕은 삼국 통일을 이루고 외세를 물리친 호불 군주로서의 측면으로 기억되었다. 중대 말 이후 왕위 계승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사회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신라 왕실로서는 정치적, 사회적 통합이 절실했다. 이 과정에서 신라 왕실의 정통성 확립이 필요했다. 그 상징과 관련하여 황룡사 9층탑이 중수되었다.

신라사회에서는 황룡사 9층탑이 삼한 통합을 이끌었다고 여겼는데, 황룡사 9층탑을 중수하면서 삼한 통합을 이끈 그리고 이를 건립하게 했던 국왕으로 선덕여왕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다. 이는 여왕 통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왔으며, 결국 정강왕 이후 다시 적법한 남자 후계자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왕 즉위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진성여왕이 즉위했던 신라 하대는 여성의 정치 활동에 부정적이었다. 여왕이라는 점만으로 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진성여왕도 여왕 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250년 만에 재등장했던 여왕 즉위는 재위 도중 양위로 끝나고 말았다. 진성여왕이 양위한 뒤 진성여

왕대에 활동했던 최치원에 의해 선덕여왕이 다시 언급되었다. 최치원은 선덕여왕을 길상천녀로 비유하였다. 이는 최치원이 선덕여왕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선덕여왕은 진성여왕 즉위의 명분이었으며, 왕권의 기반이었다. 선덕여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억되고 추송되었던 것은 신라 하대의 여왕 즉위라고 하는 정치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투고일 : 2017.05.02

심사개시일 : 017.05.16

심사완료일 : 2017.06.01

##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 『梅月堂詩集』 『梅溪先生文集』 『虛白堂集』
-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1992 『譯註韓國古代金石文』 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조범환, 2000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 강영경, 1990 『新羅 善德王의 ‘知幾三事’에 관한 一考察』 『원우문총』 8
- 강인구, 2000 『신라왕릉의 재검토3』 『고분연구』, 학연문화사
- 강재철, 1991 『선덕여왕지기삼사』 조 설화의 연구』 『東洋學』 21
- 高慶錫, 1995 『毗曇의 亂의 성격 문제』 『韓國古代史論叢』 7
- 김기홍, 2005 『한국 최초의 여성왕 선덕여왕의 리더십』 『선비문화』 8
- 金德原, 2008 『신라 中古期 叛亂의 원인과 성격』 『民族文化論叢』 38
- 金德原, 2014 『善德王代의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 31
- 김선주, 2009 『선덕여왕의 즉위 배경과 통치적 특징』 『페미니즘 연구』 9-2
- 김선주, 2013 『신라 선덕여왕과 영묘사』 『한국고대사연구』 71
- 김선주, 2017 『선덕왕 지기삼사의 형성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25
- 김용성, 2013 『신라 능원의 의의』 『민족문화』 53
- 김원주, 1983 『사적 제15호 흥륜사지는 영묘사지의 잘못』 『窄古』 51
- 金昌謙, 2015 『新羅 善德女王的 王位繼承에 대한 論議』 『韓國學論叢』 44
- 김창룡, 2007 『善德女王과 牡丹故事 攷』 『語文研究』 35
- 김태식, 2014 『모란의 심연, 선덕여왕과 그의 씨내리 남자들』 『新羅史學報』 30
- 文暻鉉, 1999 『弑王說과 善德女王』 『白山學報』 52
- 박남수, 2012(a) 『眞殿寺院의 기원과 신라 성전사원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41
- 박남수, 2012(b) 『新羅 眞殿寺院의 조영과 그 思想的 背景』 『신라문화』 40
- 박대남, 2009 『사찰구조와 출토유물로 본 芬皇寺 성격 고찰』 『한국고대사탐구』 3
- 朴勇國, 2000 『善德王代 初의 政治的 實狀』 『慶北史學』 23
- 박흥국, 1980 『경주지방에서 출토된 문자명과』 『전국대학생학술연구발표논문집』 5
- 박흥국, 2002 『와전자료를 통한 영묘사지와 흥륜사지의 위치비정』 『신라문화』 20
- 申政勳, 2001 『新羅 善德王代의 政治的 推移와 그 性格』 『大丘史學』 65

- 신종원, 1992 「安弘과 新羅佛國土說」 『新羅初期佛教史研究』, 민족사
- 신종원, 1996 「三國遺事」 善德王知幾三事條의 몇 가지 문제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17
- 신창수, 2002 「興輪寺의 發掘成果 檢討」 『新羅文化』 20
- 엄기영, 2007 「지귀(志鬼) 설화의 형성 배경과 역사적 의미」 『民族文化研究』 47
- 염중섭, 2008 「〈善德王知幾三事〉중 第3事 고찰」 『史學研究』 91
- 염중섭, 2009 「선덕왕의 轉輪聖王적인 측면 고찰」 『史學研究』 93
- 윤경진, 2015 「신라 경문왕의 통합 정책과 황룡사구층목탑의 재건 -9세기 삼한일통의식의 확립과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61
- 이강식, 2011 「신라 세 여왕의 삶과 경영」 『여성과 경영』 3-2
- 이근직, 2002 「신라 흥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신라문화』 20
- 이기동, 1981 「선덕여왕의 시대 : 침성대 논쟁에 덧붙여서」 『한국과학사학지』 3-1
- 이동매, 2013 「모란 전래 시기를 통해서 본 선덕여왕의 '모란일화'와 '화왕계」 『한국학연구』 31
- 이문기, 2015 「883년 김위홍의 해인사 비로자나불상 조성의 배경과 의미」 『대구사학』 119
- 이병도, 1969 「김유신묘고」 『김재원박사화갑기념논총』
- 이영호, 1995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이인철, 1999 「분황사 창건의 정치경제적 배경」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0
- 이정숙, 1999 「眞平王 末期의 政局과 善德王의 卽位」 『白山學報』 52
- 이재철, 2010 「善德王의 政治의 基盤과 對外政策」,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주희, 1999 「신라 선덕왕의 왕위계승 : '성골남진'과 '국인추대'를 중심으로」, 서강대석사학위논문
- 장활식, 2013 「경주 침성대의 방향과 상징성」 『신라문화』 42
- 정용숙, 1994 「신라의 여왕들」 『한국사시민강좌』 15
- 정용숙, 1994 「新羅 善德王代의 정국동향과 毗曇의 亂」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古代篇·高麗時代篇』, 일조각
- 정연식, 2009 「선덕여왕의 이미지 창조」 『韓國史研究』 147
- 정연식, 2009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침성대」 『역사와 현실』 74
- 정원경, 1982 「신라 하대 왕립건립에 관한 연구 -경문왕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중환, 1977 「毗曇·廉宗亂의 原因考 -新羅政治社會의 轉換期에 관한 一試考-」 『東亞論

叢』14

- 조경란, 2008 「善德王이 이야기하는 선덕왕의 즉위」 『新羅史學報』 14
- 조경철, 2009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역사와 현실』 71
- 조경철, 2011 「신라 선덕여왕의 알영신화 재편과 침성대」 『천태학연구』
- 주보돈, 1994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 古代篇·高麗時代篇』, 일조각
- 채상식, 1984 「신라통일기의 성전사원의 구조와 기능」 『부산사학』 8
- 최창대, 1982 「善德·眞德女王과 그 時代」 『論文集』 23-1, 부산공업대학
- 최홍조, 2013 「신라 神行禪師碑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목간과 문자』 11,
- 하일식, 2015 「선덕·진성여왕의 지도력과 시대 조건」 『내일을 여는 역사』 58
- 황선영, 2006 「신라 하대 경문왕가의 왕위 계승과 정치적 추이」 『신라문화』 27
- 武田幸男, 1985 「新羅毗曇の亂の一視覚」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歴史篇』, 平凡社

Abstract

The study of renewed appreciation and posthumous honor  
for Queen Seon-deok in the Late Period of Silla

Kim, Sunjoo

Queen Seon-deok appeared in diverse literatures in the later generations after she passed away. Examination of records on her shows that their appearances were concentrated in the upper period of Silla Kingdom and had relationship with the line of King Gyeongmun in particular. She was not only remembered by people in the later generations but also commemorated and granted the title of the kingship to her who was unthroned at the national level. The central arena for her remembrance and commemoration was Temple Youngmyosa and the Royal Tomb for her founded in her reigning period. Temple Youngmyo functioned as the original temple for praying for the repose of her soul and rituals for commemorating and granting the title of the kingship to her who was unthroned and died were held in Temple Youngmyosa and her Royal Tomb. There were often cases that princess did not issue from the main line of descent since the end of the medium period of Silla Kingdom. In this process, the possibility that the queen might be enthroned was groped and Queen Seondeok was noticed as the first case of the enthronement of the queen. But there was a negative view that Queen Seon-deok was enthroned. But it changed as the 9-story wooden stupa of Hwangnyongsa Temple was built in the reigning period of King Gyeong-mun. This change became the background that made the enthronement of the queen possible again in the lower period of Silla Kingdom, 250 years after the enthronement of the first queen. Queen Seon-deok was the cause for enthronement of Queen Jin-seong and the foundation for her regal power. She was remembered and granted the title of the kingship to her who was unthroned at the national level, which was closely bound up with the political background that the queen was enthroned in the lower period of Silla Kingdom.

Key words : Queen Seon-deok, Temple of Yeongmyosa, Tomb of Queen Seondeok, granting the title of the kingship to the queen who was unthroned, 9-story wooden stupa of Hwangnyongsa Temple, Queen Jin-seong